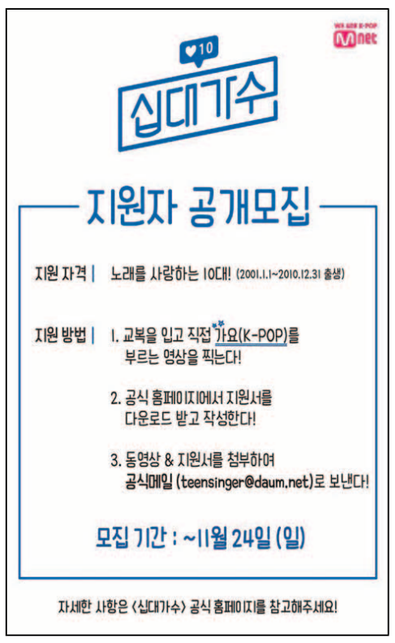
문자투표 조작 논란 엠넷, 새 오디션 '십대가수'도 잡음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조작 파문이 내년 방송하는 '십대가수'와 엑스원(왼쪽 사진) 팬클럽 가입비 환불 사태로 이어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십대가수' 지원자 공고문.
스포츠동아DB·사진제공 | 엠넷

엠넷, 보컬 뽑는데 이성친구 말하라고?

지원서에 친분 가수 등 개인정보 요구
한 기획사 "프듀와 유착 의혹 무시 못해"
엠넷 측 "10대가 심사위원 차별화일 뿐"

케이블채널 엠넷이 내년 선보이는 새 오디션프로그램 '십대가수'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6년부터 방송한 '프로듀스' 전 시리즈의 조작 정황이 드러났고, 심지어 다른 프로그램으로까지 경찰 수사가 확대된 가운데 제작사인 CJ ENM이 새로운 오디션프로그램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물론 참가 지원서의 일부 항목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참가자 모집을 시작해 이달 24일 마감하는 '십대가수'는 2001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10대만 지원할 수 있다. 연예기획사 연습생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대 평가자도 참여시켜 최종 우승자를 가릴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서 항목 가운데 현재 활동하는 가수 중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 기재하고, 자신과 닮은 연예인을 쓰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원자들은 지원서를 토대로 하는 1차 심사 과정에 꼭 필요한 항목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음악적 재능을 온전히 평가받기도 전에 외부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심사를 통과해 본 방송에 올라 이 같은 지원자 정보가 공개됐을 경우 불필요한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에 연루된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활동하거나 해당 기획사의 스타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해를 받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성친구 유무와 이상형까지 밝히도록 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자아내고 있다. 이미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각종 논란이 '고등래퍼' '쇼 미 더 머니' 등 앞선 오디션프로그램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18일 "10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프로듀스'의 일부 제작진과 기획사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했다. 이 시점에 굳이 엇비슷한 오디션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엠넷 측은 "'십대가수'는 10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기존의 오디션프로그램과는 다른 진행 방식을 추구한다"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프듀' 조작 후폭풍…엑스원 팬들 "가입비 3만4000원 돌려줘"

〈공식 회원수 26만여명〉

아이즈원은 사전주문 앨범 전액 환불
생방송투표 요금 100원도 돌려줄듯

엠넷 '프로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엔 '프로듀스X101'에서 배출한 프로젝트 그룹 엑스원의 팬들이 "팬클럽 가입비를 환불해 달라"며 잇달아 항의하고 있다.

엑스원의 팬들은 18일 '가입비환불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입비 환불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7월 말 가입 후 18일 현재까지 3개월이 지났지만 회원 카드 등이 포함된 공식 키트도 받지 못했고, 특히 엑스원이 활동 기간 주어지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엑스원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스윙엔터테인먼트 측이 엑스원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16일 공식 팬클럽사이트를 통해 혜택 중 하나인 키트를 먼저 발송한다고 공지하자 더욱 분노케 만들었다.

문자 투표 조작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아이즈원 측도 사전에 주문한 앨범에 대해 전액 환불해주고 있고, 시청자들도 당시 방송을 통해 결제한 100원(생방송투표)을 환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팬클럽 가입비 환불이 먼저"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팬들은 "공식 팬클럽 가입비 환불을 촉구하며 환불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윙엔터테인먼트는 엑스원이 8월 공식 데뷔하기에 앞서 7월 중순 예매사이트 인터파크를 통해 공식 팬클럽 회원을 모집했다. 가입비는 3만4000원(배송료 포함)이고, 활동 기간은 7월 30일부터 1년이다. 유료로 결제한 팬들은 엑스원의 팬미팅이나 팬미팅 티켓 선예매, 공개 방송과 각종 행사 등 공식 스케줄에 우선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당시 팬들은 자신들이 뽑은 출연자들이 데뷔를 앞두고 있던 만큼 가입비를 지불해 팬클럽에 가입했다. 정확한 가입 멤버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공식 팬클럽 회원 수만 26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최근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였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가 생방송 문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고, 엑스원의 활동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에 이르자 팬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손혁 "강한 부분 더 강하게…한걸음 더 전진"

고척 스카이돔서 키움 감독 취임식
"코치·선수들과 더 많이 이야기할 것"



키움 손혁 신임 감독이 1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안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시리즈 준우승 팀의 지휘봉을 이어받은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손혁 신임 감독(46)의 다짐이다. 한국시리즈 준우승팀의 새 사령탑으로 더 높은 곳을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손 감독은 1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취임식 자리를 통해 선수단 전체와 만났다. 익숙한 얼굴들이 함께 자리했다. 홍원기 수석 코치를 비롯해 지도자로 변신한 김지수 수비 코치까지 손 감독과 오래도록 인연을 맺어온 이들이 조력자로 한 데 모였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손 감독은 "부담과 고민은 코칭스태프와 함께 나누기로 했다. 그러면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자리다. 꾸준히 포스트시즌 초대장을 받는 키움은 2019시즌 준플레이오프에서 시작해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뤄낸 강팀이다. 특히 올 가을에는 '벌떼 마운드'라는 별칭을 얻으며 탄탄한 투수력을 자랑했다. 손 감독은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털어놓으면서도 "항상 중점을 두는 것이 강한 부분을 더욱 강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강점을 살려 더욱 강한 투수진을 만들고자한다"며 "SK 와이번스에 있을 때부터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웠던 타선이 키움이었다. 기존의 틀을 깨지 않고 수석, 타격 코치와 상의해 공격력도 한층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키움 선수들이 대표팀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팀 내 좋은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정말 많다"고 말한 손 감독은 "이들이 기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했다.

2014~2016년 키움에서 투수코치로 지냈던 경력도 톡톡히 살릴 계획이다. 더욱이 손 감독은 코치 시절부터 선수들과 친밀하게 장난을 치는 등 소통에 능했다. 그는 "홍 수석코치와는 어릴 때부터 봐와서 눈만 봐도 서로를 잘 안다. 다른 코치들과도 예전부터 농담을 나누던 사이"라며 "정말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코치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다. 내겐 큰 플러스 요인"이라고 힘 줘 말했다.

아울러 "선수들과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본인이 원하는 것, 지난해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들, 새 시즌에 대한 준비의 이야기들에 관해 대화하며 하나씩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고척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내가 왜 떴게?



김응수

그래서 CF 출연료 얼마?

●김응수, CF만 87개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타짜 곽철용(일명 아이언드래곤) 신드롬의 주인공 곽응수가 인기 역주행을 실감하고 있다. 요즘 말로 '강제 전성기 소환'이다. 대세답게 87개의 CF 제의가 한두 달 사이에 쏟아져 들어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단다. 젊은 층 사이에서의 '곽철용 열풍'을 입증하듯 온라인게임 CF 제의가 가장 많다고. 자고 일어나니 돈방석과 꽃길이 눈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CF 출연료는 얼마나 될까. "묻고 더블로 가!"

진정한 퍼스트클래스란



탕웨이

●탕웨이, 이코노미석

배우 탕웨이가 한국행 비행기 이코노미석에서 포착됐다는 소식. 중국의 한 네티즌은 "운 좋게 탕웨이의 옆자리에 앉았다. 너무 흥분됐다"며 영상을 공개했고 중국의 다수 매체가 이를 앞 다퉈 보도했다. 이코노미석에 앉은 탕웨이는 회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의 수수한 차림이었고 매니저나 수행원 없이 혼자 캐리어를 끌고 이동했다. 영상 찍으신 분, 전생에 대륙을 구하신 분. 탕웨이 옆자리가 퍼스트클래스였네요.



성유리

방부제가 아니라 냉동인간

●성유리, 10대 미모

영국 런던에서 찍었다는 성유리의 사진들은 이대로 화보집에 넣어도 될 정도로 완벽하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학생처럼 보인다", "인형이냐"며 놀라워했다. "10대처럼 보인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에이, 그래도 10대는 아니죠. 스물한 살 정도?